

“혁신조달, 공공서비스 개선·혁신기업 마중물 대표적 도구”

이노비즈정책연구원 혁신 세미나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보좌관
“기업 혁신 돕는 것, 국가의 역할”
‘지역형 협업 클러스터’ 구축 제시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보좌관은 “정부가 민간산업을 진작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도구가 많지 않은데 그 대표적인 것이 혁신조달”이라며 “혁신조달은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점프하는데 도움이 된다. 공공서비스도 개선되고, 혁신기업의 성장 마중물과 제품의 테스트 베드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동 경제과학보좌관은 이노비즈협회 산하 이노비즈정책연구원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과 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개최한 ‘혁신성장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키노트 스피치를 통



이노비즈협회는 6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혁신성장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 2번째부터)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이정동 경제과학보좌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노비즈협

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조달사업법 전면개정을 통해 혁신제품을 구매한 뒤 문제가 생길 경우 조달 담당자에게 면책을 주는 조항을 처음으로 담았다. 또 혁신제품의 비교 대상이 없는 점을 들어 수익계약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정동 보좌관은 “기업들이 기술기반으로 새로운 혁신을 하고, 새로운 실

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는 것이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선도국가를 위한 ‘국가의 일’ 가운데 1순위를 기업들의 혁신적 시도를 뒷받침하는 ‘혁신조달 시스템’으로 꼽으면서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도 혁신조달이 필요하다”면서 “뉴딜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궁극적

으로는 조달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린스마트교실이 대표적이다. 정부 정책은 결국 조달로 구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이노비즈정책연구원 최윤수 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군의 성과와 과제’ 발표를 통해 혁신형 리딩 기업들을 주축으로 한 ‘지역형 협업 클러스터 구축’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윤수 연구위원은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과 같은 외부 영향으로 혁신과 성장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면서 “투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바탕으로 ‘혁신 제조 강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이노비즈정밀실태조사’를 토대로 혁신형 중소기업군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혁신형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았다. 또 수도권 기업들은 연구개발(R&

D)에, 비수도권 기업들은 설비에 대한 투자비용이 더 높았다. 특히 이노비즈 외에 벤처, 메인비즈(경영혁신)를 아우르는 혁신형 기업은 매출액, 영업이익, 수출 등 성과에서 일반 중소기업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등 ‘항아리형 경제’ 실현을 가능케 하는 주축이 될 수 있는 기대감도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선우 단장은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과 성과’ 주제 발표를 통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강화를 통한 신산업 분야 미래 인재 육성 총력 ▲기업가형 대학 가속화 ▲데이터 기반 플랫폼 및 ESG 지향 협력으로의 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선우 단장은 “산학연협력 유형별 공동 수요조사 등 수요 발굴 플랫폼을 구축하고 범부처 산학연협력 종합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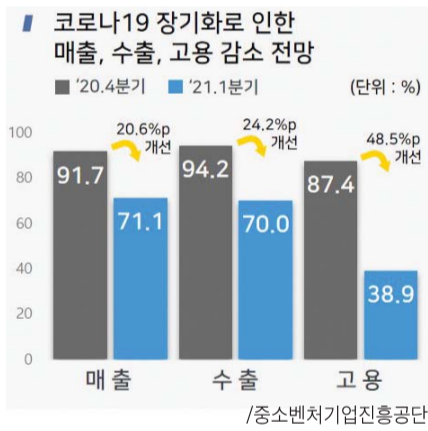
중소 71%, 올 1분기 매출·수출 감소 예상

중진공, 중소기업 606곳 조사
62% 코로나 피해 ‘1년 이상’ 예상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1·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판단했다. 예상하는 평균 매출 감소율은 14.5%였다. 또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전반의 피해가 1년 이상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곳 중 1곳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신규 투자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606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영 현황과 자금수요 동향조사’



를 실시해 6일 내놓은 이슈보고서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1.1%는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에 대한 70%의 기업이, 고용은 38.9%의

기업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다만 지난해 4·4분기 조사 시점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양호해진 수치다. 4분기 조사에선 기업들 가운데 91.7%가 매출 감소를, 94.2%는 수출 감소를, 또 87.4%는 고용 감소를 각각 예상했다.

응답 기업들 중에선 62.4%가 코로나 피해에 대해 ‘1년 이상’을 예상했다. ‘2년 이상’이란 답변도 16.5%에 달했다. 피해 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예상한 기업은 25.1%였다.

대부분의 기업은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 조사 결과 86.6%(대우악화 47%+다소악화 39.6%)의 기업이 전년 동기 대비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김승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최문순 강원도지사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앞줄 왼쪽 3번째부터)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확대 협약

중기중앙회-강원도 계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와 강원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확대 협약’을 맺었다.

중소기업계는 또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협동조합 활성화, 판로개척 지원, 기업환경 개선 등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6일 오후 춘천세종호텔에서 ‘강원도지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강원지역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상천 강원중기청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두 기관은 협약식을 갖고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공공조달 등 구매 향상 ▲강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추천 수익계약 활성화 ▲강원도 중소기업 공공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근로자와 이익 나누는 ‘성과공유제’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간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참여 희망 중소기업은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성과보상공제 등 7가지 성과공유 유형 중에서 하나를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후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성과공유 기준은 경영성과급 30만원

이상 지급, 임금수준은 직전 3년 평균보다 높은 임금 인상, 우리사주제도나 주식매수선택권 도입 등이다.

또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으로 성과보상공제에 해당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도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성과공유 도입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최대 30점 가점 부여,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자격 부여,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최대 26점 가점 등을 우대한다. /김승호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인의 날 포상 접수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제7회 중견기업인의 날’ 유공 포상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마감은 6월4일까지다.

‘중견기업인의 날’ 유공 포상은 2014년 7월22일 시행된 ‘중견기업 특별법’에 따라 시작한 것으로 중견기업 대상 최대 규모 정부 포상이다.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상생협력 노력으로 동반 성장 문화를 확산한 중견기업인에게 수여한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 업계 최초 ‘물류 통합관리’

온라인 쇼핑물 사업 전과정 관리

CJ대한통운이 온라인 쇼핑물 사업 전 과정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개발,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이커머스의 오프라인 물류를 통합관리해 주는 e-풀필먼트 서비스에 이어 온라인 과정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경쟁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은 이커머스 전용 물류

통합관리시스템이플렉스(eFLEXs)를 개발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이플렉스는 CJ대한통운의 e-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커머스 기업 고객들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이다.

이플렉스는 지그재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플랫폼, 오픈마켓, 자사몰, 종합몰 등 다양한 복수 판매처로부터의 주문취합부터 택배출고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전 과정의 처리를 통합해 자동으로 수행한다. /김승호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박영선 “다시 물대포 뿌려지는 서울 원하나” 반문, 지지 호소 /사진 뉴스스
▲ 오세훈 “청년들 지지·성원 강해져... 일로 보답할 각오”

▲ 서울시교육청, 학교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 가르친다
▲ 국방부, 군 내부정보 활용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막바지



▲ 정의당 “박영선, 노회찬 따라하기 전에 본인들 민낯 보라”
▲ 통일부 “北인도주의 사업, 목적 맞게 협력할 것” /사진 뉴스스